

▶ 중국 문화산업 기지 건설연황

쓰촨의 문화산업기지 건설 동태

2005년 쓰촨의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진흥기지가 설립

2005년 4월 쓰촨에서 "국가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진흥기지"가 설립되었다. 기지의 주요기능은 교육훈련, 제품의 연구개발, 제품 인큐베이팅 및 국제협력이다. 허가와 동시에 쓰촨기지는 지방의 공산당위원회,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기존의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며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합하여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생산과 연구를 결합하는 길을 걸어 쓰촨의 게임산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서부 애니메이션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요구했다.

2006년 4개의 문화산업 기지가 국가지범 기지로

2006년 5월 29일 문화부는 제2기 국가 문화산업 시범기지를 명명했는데 쓰촨성 청두시 삼성화향 풍경구 등 4개 문화산업이 이에 포함된다.

표창을 받은 기지 중에서 청두시 삼성화향 풍경구, 청두시 흥문투자발전유한공사, 구채골연예산업군, 삼성퇴문화산업단지 등 4개소의 쓰촨기업이 랭킹에 포함되었다.

쓰촨성 더양 삼성퇴 문화산업단지

더양(德阳)"삼성퇴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 연구개발센터, 박물관그룹, 영상제작 촬영기지, 고등예술 교육학원, 호텔전시센터, 관광부동산 등 11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총 투자액은 4,216만 달러에 달하고 이 중 3,000만 달러의 자금 유치가 필요하다. 2010년에 이르러 관광구 전체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연간 관광객 수는 360만 명에 이를 것이며 관광소득은 3억 2천만불에 이를 전망이다.

쓰촨성 구채골 연예산업군

구채골의 연예산업군은 쓰촨성 아바주(阿坝州) 구채골 관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다. 2005년 말까지 모두 10개소의 예술공연단체가 집결되었고 취업인원은 727명이다. 2005년, 공연소득은 10,476만 달러, 영업이익은 1,321만위안에 이르렀고 납세액은 104만 4천위안이었다.

구채골 연예산업군은 사회적 효과를 우선으로 하여 사회효과와 경제효과를 동시에 실현했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입과 연예인 육성을 확충함과 동시에 연예생산관점, 경영관점, 품질관점, 소비관점과 관리관점 등의 분야별 혁신을 적극 추진하면서 혁신적으로 예술생산을 추진하고 연예시장을 발전시켰다. 최근 "신기한 구채골"등 일련의 우수작품을 공연했고 창작인원, 워크샵 및 가격 차별화 등 시장운영 모델을 탐색하면서 마케팅 메커니즘 구축과 주변제품의 개발 및 경영을 추진했다. 인간중심으로 본토의 우수한 인재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룡중얼자(容中尔甲)— "고원홍"그룹 등이 탄생했다. 아울러 각급 정부가 조직한 여러 가지 공익성 문화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임을 강화하면서 훌륭한 기업이미지를 키웠다.